

출판계 움직임

민음사, 김수영추모강연회 열어

‘金洙暎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는 민음사(대표 朴孟浩)는 김수영의 20주기를 맞아 그의 생전의 문학적 업적을 추모하는 강연회를 6월4일 오후4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었다.



朴淵禧·李浩哲씨를 비롯한 작가·시인들과 200여명의 대학생충독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추모 문학강연회는 柳宗鎬(연제=대지 우리의 밭피기같은 서울의 등불)·白樂晴(살아 있는 김수영)교수의 추모강연과 정희성·최승호씨의 김수영시 낭송, 황지우씨의 추모시 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시인 김광규씨(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글板本資料展'

지난 5월28일 강남구 서초동에 신축 이전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신축개관 기념으로 '한국판본자료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기간은 8월 31일까지.

이 전시회에는 목판본 「訓民正音」(1446)에서 1900년대까지의 한글관계 판본자료 126종 216책이 연대순으로 선보이고 있어, 한글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출첩, '제네바 국제도서전' 참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5월11일~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회 제네바 국제도서전전시회에 참가했다.

출첩은 이 전시회에서 24평방미터의 전시대에 총460종의 도서를 선보였으며, 白允基(고문사대표)·



새 이사장에 尹炯斗씨

2일 출판협동조합 임시총회서

汎友社 尹炯斗사장(53)이 6월2일 열린 한국출판협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제2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150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가한 이사장 선거에서 尹이사장은 76표를 얻어, 63표를 얻은 羅慶安씨(機電硏究社대표)를 누르고 새 이사장에 뽑혔다.

尹이사장은 66년 범우사를 창립, 각종 교양서적을 출판해왔으며, 出協부회장(1984-86)과 한국도서

유통협의회 회장(1982-87)을 역임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은 58년에 창설, 서적 공동판매와 생산조성자금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출자금 총액 24억6천만원에 222개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전국의 특약 서점수는 220개점에 이른다. 전임 許昌成 이사장(평화출판사 대표)은 일신상 사정으로 지난 5월초 사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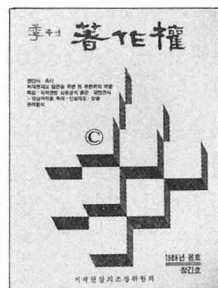
朱誠弼(아카데미서적 대표)씨가 직접 참가했다.

이 전시회에는 북한도 12평방미터의 전시대를 빌어 참가했는데, 주로 김일성 선전책자들을 전시, 우리측 전시대와 큰 대조를 보였다.

이번 국제도서전은 전시장 규모가 작년의 2만 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로 확장됐고, 참가규모도 35개국 751개 사로 늘어났으며, 관람자도 1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

계간 「著作權」 창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張仁淑)는 저작권문제에 관한 연구논문과 시사 평론 및 국내외의 자



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계간 「著作權」을 5월16일자 창간했다.

88년 봄호로 선보인 창간호는

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학원사측은 현재 법정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등록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제작준비기간이 7~8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아, 실제 창간은 88년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사는 故金益達씨에 의해 해방직후인 45년 9월에 창립된 이래 교양·생활부문의 양서를 꾸준히 출판해오고 있으며, 현재 「일요신문」 외에도 월간여성지 「主婦生活」 「여성자신」과 월간학습지 「학원」을 발행하고 있다. 출판사에 의해 일간신문이 창간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羅春浩씨, 대통령표창 받아

도서출판 藝林堂대표 羅春浩씨(사진)가 지난 5월31일 오후3시



국무총리실에서 베풀어진 청소년 관계 유공자 표창식에서 대통령표

창을 받았다.

나춘호사장은 73년 예림당을 창립, 그동안 아동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해왔다.

진영출판사 상호 변경

진영출판사(대표 이환욱)가 眞影社로 상호를 바꾸고 5월25일 사무실을 옮겼다. 새 주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덕수빌딩 101호. 대표전화 733-5755.

번역원고 출판 희망

번역전문가 이일남씨는 페트리셔 오브라이언 지음 「The Woman alone」(고독한 여성, 원고량 1,148매)과 길버트 하이얼즈 지음 「The art of teaching」(교육의 기교, 원고량 1,300매)을 출판할 출판사를 찾고 있다.

앞의 책은, 고독하지만 자립을 터득해가는 독신여성의 체험담을 엮은 것으로, 저자 자신의 경험과 미혼독신녀·미망인·이혼녀들과의 인터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각급 학교와 학교밖에서 행해지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훌륭한 교육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연락처는 서울 동대문구 회경동 286-174 12동 4반 이일남(전화 212-9640).



書聯, 종로서 '惡書追放 캠페인' 벌여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회장 李秉仁)는 불량·저질도서 추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6월 3일 오전 10시~11시 1시간 동안 종각 앞 네거리 일대에서 벌였다.

이달 캠페인에는 동 연합회 산하 서울지구 조합원 50여명과 교보문교·종로서적의 여사원 30여명이 참가, 시민들에게 '불량·저질도서를 추방하자' '악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전단을 배

부하는 한편, 각 출판사로부터 기증받은 책 3천권을 행인들에게 나눠주어 양서 읽기를 권장했다.

서점인들은 시내 각 지구조합별로 매년 봄·가을마다 영등포 역전, 노량진 역전 등에서 '독서생활화'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書聯 주관으로 시대 중심가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書聯은 앞으로 이같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벌일 계획이다.